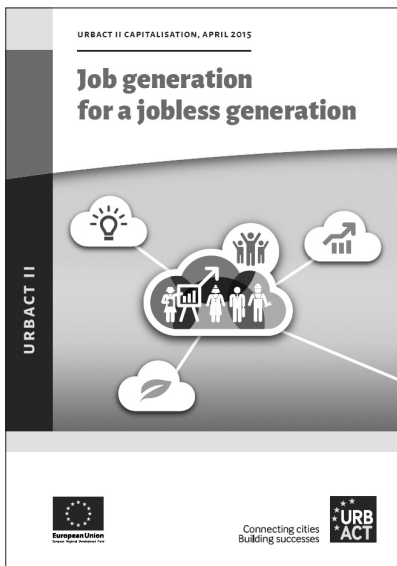


## [보고서]

# 청년실업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 유럽의 최근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배효정 책임연구원 hyojungbae@gmail.com

국토연구원



**Job generation for a jobless  
generation  
2015**

URBACT Secretariat

## 01 유럽의 청년실업 현황

청년실업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2016년 2월 현재 IMF사태 이후 최고치인 11.1%를 기록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청년고용률은 10년째 하락하고 있으며 2014년 서울 청년 실질실업률이 31.8%까지 치솟았다. 유럽도 결코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2013년 말 OECD국가 중 9개국의 청년 실업률은 25%를 넘었으며, 2014년 청년 실업률은 2007년에 비해 1/3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2013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유럽 28개국의 15~24세 청년 실업자 수는 490만 명으로, 이 수치는 성인 실업의 2배 이상이며 청년 노동가능 인구 중 1/4을 차지한다. 니트족(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즉 취업 의지가 없으며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은 750만 명에 달한다. 또한 직업은 있으나 임시직이거나 능력 이하의 업무를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인 고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림1 유럽의 청년실업률 현황(2013.12 기준)



자료 Eurostat data; URBACT II capitalisation, 2015 재인용

유럽의 경제위기는 청년들에게 특히 더 혹독한 결과를 초래했다. 긴축재정으로 인해 청년고용이 급감하고 교육 예산도 삭감되었다. 그리스의 경우 최저임금이 평균 22% 삭감된 가운데 청년임금은 32%나 삭감되었다. 양질의 일자리, 훈련 및 커리어 개발을 위한 기회는 감소되고 고용 불안정에 따른 심리적 불안은 증폭되었다. 이러한 실업 문제는 구조적 차원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유럽 노동인구의 2/3 이상이 도시인이며 청년층의 7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년실업에 관한 도시적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유럽 차원의 해결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도시는 청년실업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가이드 및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015년 '지속가능한 통합적 도시 발전을 위한 유럽 차원의 지식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인 URBACT(The Urban Development Network Programme)에서는 청년실업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의 청년 일자리 현황 파악 및 고용지원을 위해 도시 차원에서 경주해야 할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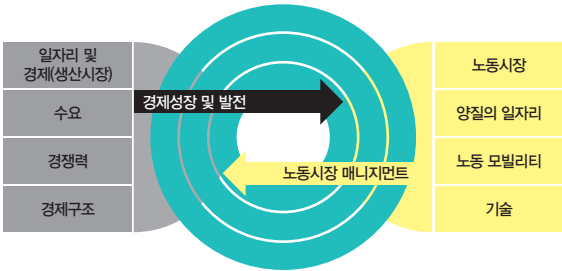
력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 글에서는 변화하는 일자리, 고용 및 역량 강화의 중요성, 신도시 경제 분야의 청년고용, 지역 고용의 중요성, 유럽 청년실업 제도 등을 소개함으로써 서울의 청년고용 정책 및 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02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고용 정책들

현재 유럽은 청년층의 고용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가운데 2013년 유럽 의회에서 청년고용 패키지(Youth Employment Package) 정책의 일환으로 수립된 '청년고용 보장(Youth Guarantee)'은 가장 직접적인 청년고용 창출방안이라 할 수 있다. 25세까지의 모든 청년에게 정규교육 종료 혹은 실직 4개월 이후까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속적 교육·견습·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갖추고 있다. 유럽에서는 또한 2014~2020년까지 매년 10억 유로씩 투자한 60억 유로의 사회기금을 청년고용계획(Youth Employment Initiative)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중 30억 유로는 청년실업이 25% 이상인 지역의 청년 다투족에게 투자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유럽의 주요 도시 네트워크인 유로시티(EUROCITIES)는 도시 청년실업에 대한 데이터 및 성공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고용 및 사회혁신 프로그램(Employment and Social Innovation programme)을 마련하여 청년실업의 문제를 파악하고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유로시티 사회포럼(Social Affairs Forum, EUROCITIES)에서도 3개 우선순위의 하나로 청년고용 및 포용을 선택했다.

유럽 각 도시들도 청년실업에 대처한 각종 정책

**그림2** URBACK의 '고용을 위한 도시차원의 조치에 대한 체계 구성



자료 URBACT II capitalization, 2015, p.8

과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 에딘버러 고용보장(Edinburgh Guarantee)의 경우 시, 산업, 고용주, 교육센터, 학교, 학부형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모든 졸업생들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다. 프랑스 낭트(Nantes)시는 낙후지역 청년고용이라는 목표 아래 비영리단체·협회·스포츠클럽 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시정부가 공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년고용에 대한 조항을 마련했다.

청년실업의 문제와 양상은 각 도시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처방안도 다르지만, 공통점도 존재한다. URBACK은 이러한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고용을 위한 도시 차원의 조치(City action on jobs)'에 대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일자리와 경제라는 생산시장,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그리고 그 둘을 잇는 연결 관계로 구성한다.

### 03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

앞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을 정책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일자리 변화에 대한 이해, 교육과 고용의 연계, 성장 지향적 고용 창출, 기업이 정신의 배양, 지역 파트너십 구축이 그것이다.

#### 새로운 일자리 발굴

실업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업 세계의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먼저 건강이나 사회보장 분야는 현재 각광받는 직업군이라 할 수 없지만 인구구조의 변화 추세를 감안할 때 안정적인 분야로 전망된다. 그리고 외면받는 기존 일자리를 변화시킴으로써 청년실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 예로,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방의 이팔라다(Igualada)시에서는 섬유산업 혁신으로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 스페인 이팔라다시의 섬유산업 재창조

- 스페인 이팔라다시는 3개의 섬유산업 클러스터를 개발하고 시황·브랜딩·디자인·공급망 관리·물류 등을 포함한 전략 이슈를 도출하여, 생산라인이 외부로 이동되더라도 고부가가치 산업인 디자인·연구·마케팅·소매·물류 분야는 지역산업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디자이너의 참여 독려,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형성, 합동 패션 컬렉션 지원 등의 노력을 통해 18개월 동안 관련분야 매출 25% 증가, 70개의 고용 창출을 달성했다.

#### 교육과 고용의 연계

재능이란 단순히 고학력이 아니라 도시의 다양한 직업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미국의 고용서비스 기업인 맨파워 스테디(Manpower Study)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 기업의 25%가 고용난을

겪고 있으며 42%만이 준비된 대학 졸업자 인력을 얻었다. 이는 청년실업의 한 원인이 기술 부조화에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요구 기술을 지닌 청년의 수는 적은 반면 그렇지 못한 청년의 수가 너무 많은 현실을 나타낸다. 한편 필요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장인은 29%인 반면 청년의 경험 부족 및 태도를 문제삼는 고용주가 24%라는 조사결과는 제대로 된 교육 기회와 보수를 제공하는 일터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말해준다.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에어버스(Airbus)사에서는 이 지역의 교육과 고용주 간 간극이 크다는 인식 아래 지자체, 지방 및 국가 차원의 담당기관 및 대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교육과 고용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은 국가 및 지역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항공산업에 연관된 직업훈련을 개발하여 표준화된 직업훈련을 시행하되, 석사 과정과 연계하여 오전에는 인턴십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강의를 받는 식이다. 폴란드의 브로츠와프(Wrocław)시는 고속런 청년노동력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직업훈련 요소를 증대하고 산학협동 허브를 설치하여 교육과 업무의 긴밀성을 강화했다. 이렇듯 교육 시스템과 업체 간의 장기적인 관계망 구축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정규적인 교육 외에 직업관찰의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십 등의 여건 조성도 중요하다. 영국의 위성방송사인 스카이브로드캐스팅(Sky Broadcasting)에서는 스카이 아카데미(Sky Academy)를 편성하여 자기개발을 위한 기술을 제공한다. 즉 뉴스 리포트 제작에 동원되는 최신식 기술을 사용해볼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연수와 견습, 대학원 과정을 개설해놓았다. 기간, 내용, 비용 등은 이때 견습 프로그램의 고용주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대학원 과정뿐만 아니라 유아·초등교육

에서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도 필요하다. 브로츠와프시의 경우 초등학교생들이 사업가 활동 및 사업 시뮬레이션 배우는 보드게임을 만들었고, 만 4~5세의 유아들에게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가르치는 시간을 배정하고 있다. 핀란드 탐페레(Tampere)시에서는 초등학교생들이 가상의 도시에서 피고용인·시민·소민을 경험해봄으로써 기업가·사회·경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Me & My City'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 성장 지향적 고용 창출

'청년 포럼(Youth Forum)<sup>1</sup>'은 성장 친화적 투자가 이루어질 때 청년고용 문제도 발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양질의 지속가능한 고용 보장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 예로, 16~24세 청년실업이 19.6%에 달하는 영국 요크셔의 리즈도시권(Leeds City Region)에서는 청년 고용 창출에 초점을 맞춘 성장 친화적 프로그램인 '리즈 도시권 기업파트너십(LEP)'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고용을 늘리는 것이 성장 및 고용주의 요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수요에 부응하는 활동들이 성장 동인이자 청년실업의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기관과 고용주는 전략 및 우선순위를 개발하고 목표를 선정하는데, 고용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핀란드에서는 '산시카드(sanssi card)'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구직자나 졸업생에게 바우처(voucher)를 지급하여 최대 10개월 동안 700유로를 지급하거나 견습기간의 월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시정부는 필요로 하는 배경조사를 하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자 소집, 활동 촉진, 거래를 중개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1 유럽 청년 포럼은 99개의 국가청년의회(National Youth Council)와 국제청년조직을 대변해 EU, 유럽의회, UN에 청년들과 이들 조직을 대변하여 요구를 전달하는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기구이다.

### 영국 요크셔 리즈도시권(Leeds Cty Region) : 니트족(NEET)이 없는 도시를 위해

- 리즈 도시권 기업파트너십(LEP)은 영국정부가 2011년 조직한 지역 당국, 기업 및 관계자 간 파트너십으로, 지역경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리즈 도시권 기업파트너십은 니트족이 없는 도시를 목표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5-3-1' 캠페인데, 이는 지역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공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주가 제공할 수 있는 5가지(기술 투자, 초기창업자에 대한 멘토링, 교육제공자와 연계, 청년실업자에게 직업연수 제공, 견습 제공), 3가지 이유(개인 잠재력 발굴, 고용주 사업 이익, 지역 경제 활성화), 1가지 결과(경제 성장)를 골자로 하는 이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은 현재 380개 이상이다.
- 상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헤드스타트(Headstart)는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산은 500만 파운드이다. 인터뷰 보장, 멘토링, 고용주 대상 임금 인센티브 등을 통해 6개월 동안 실업청년 및 고용주를 동시에 지원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프로그램의 장점을 마케팅 하며, 청년 고용에 적극적인 민간고용기관의 의견에 영향을 주기 위해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직업소개소가 만들어졌다. 견습허브 및 훈련기관(Apprenticeship Hub and Training Agency)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독립적이고 조직적인 견습 관련 조언 및 지원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구직자에게 견습을 제공하는 고용주 비율을 4년 내 12%에서 20%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견습을 제공하기 어려운 고용주를 위해, 견습훈련기관(Apprentice Training Agency, ATA)은 3년 동안 2500개의 견습을

창출하고, 견습훈련기관(Apprentice Training Agency, ATA)을 수료한 견습생을 고용하도록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임청년계약(Devolved Youth Contract)은 18-24세의 실업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청년 계약에 기반하여, 파악되지 않은 16~17세의 니트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초동 조치로서, 지역 커뮤니티 그룹에 보조금을 지원해 이들을 파악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한다. 재능매치(Talent Match Leeds) 역시 국가 사업으로, 1년 이상 실직 청년을 지원한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봉사 및 커뮤니티 분야 전문파트너가 참여하며, 그 설계에 청년 대사 등 청년들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 기업가 정신의 배양

오늘날 직업 세계가 요구하는 바는 점점 하이브리드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교육에 따른 기술에 부합하는 일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피고용인과 사업가의 커리어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거나, 피고용인으로 시작한 청년들이 1인 사업자나 파트타임 피고용인/사업가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청년의 직업을 '하이브리드 커리어'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규 교육을 받는 동안 사업적 하이브리드 기술을 배양하는 요구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핀란드 탐페레시의 프로아카데미(Pro-Academy)가 바로 그러한 모델이다. 시 정부는 청년들이 모여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 로테르담, 이탈리아 토리노, 포르투갈 브라가, 스페인 발렌시아 등에는 기존 스타트업 지원이나 사업 부스터/허브의 수준을 뛰



어넘어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는 열려 있는 공유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기업이 정신을 배양하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 대학, 전문대학, 직업훈련기관 등의 커리큘럼을 수정할 수도 있다. 덴마크 등의 경우, 기업이 정신에 관한 교육과정이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다.

#### 핀란드 탐페레시의 프로아카데미(Pro-Academy)

- 프로아카데미는 탐페레대학 응용과학 전공 대학생 15~20명이 팀을 구성하여 2년 반 동안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는 체험을 한다. 팀 작업, 마케팅, 세일즈, 그래픽 디자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등을 배우며, 대학원생 네트워크가 이를 지도한다.
- 이외에도 탐페레시는 핀란드에서 기업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구직자들에게 사업계획을 짜는 방법, 스타트업 보조금 지원에 대한 워크숍 및 수업을 제공하고 창업을 장려한다.

#### 지역 파트너십 구축

일자리 창출은 지역적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용이하다. OECD 지역 고용창출 리뷰에 따르면, 지역 단위로 수행되는 전략이 가장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 공공섹터를 포함한 고용서비스 제공자, 훈련 교육기관, 경제개발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이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하는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시정부는 고용주들에게, 특히 전통적으로 낮은 훈련수준을 제공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인턴십을 장려할 수 있다. 지역 고용 및 훈련기관은 수요 기술과 연계된 분야별 전략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고용의 경로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고용 대안의 측면에서 시정부는 청년들에게 기업이 정신을 홍보할 필

요가 있다.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통합전략을 비롯한 우선순위, 목적, 액션 플랜을 공동 수립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한 예로, 핀란드의 반타(Vantaa)시에서는 공공기관, 교육자, 200개의 기업이 공동으로 재정 가이드 및 견습·교육·구인정보 등을 구축하여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페트라(Petra)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스의 테살로니키(Thessaloniki)시에서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해 문화 창조 분야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창조 플랫폼(Creativity Platform)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그리스 테살로니키시의 창조 플랫폼 (Creativity Platform)

-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테살로니키시는 유럽에서 청년실업이 가장 심각한 도시 중 하나로, 18~29세 청년 실업률이 43.8%에 달한다. 이에 문화 창조 분야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고안된 창조 플랫폼(Creativity Platform, CP)은 창조산업 프리랜서와 기업간 네트워크 및 지속적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비영리조직인 CP는 세미나·워크숍·매치메이킹 이벤트 등을 조직하며, 피고용인·고용주·스타트업 및 기존 사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 ‘크리에이티브 브런치’라는 네트워킹 이벤트를 통해 기금 모음을 홍보하며, ‘핸드픽’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역 제작자, 디자이너, 점포 주인, 인근 업체를 홍보한다. 또 ‘테살로니키 창조성(Creativity for Thessaloniki)’을 통해 컨퍼런스, 세미나, 창조 커뮤니티 웹사이트, 예술공간/사무소 개방 주말 등을 마련해서 관련 직업인들이 스스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에 74개 스튜디오, 아틀리에, 사무소가 참여했고 4,000명이 방문했다.
- 시정부는 각종 이벤트의 공동 주관자로서 미팅 장소

및 광고 제공 등의 방식으로 사업체들을 지원했다. CP는 열린 상향식 구조로, 느슨한 구조와 비공식적 접근이 성공의 열쇠였다. 이 사업을 통해 창조 산업과 지역 커뮤니티의 연계뿐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도 형성할 수 있었다.

### 03 시사점

향후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지속가능한 고용 보장을 우선순위로 두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2월 현재 청년고용 할당제를 대기업으로 확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URBACT에서는 제도적 구속력을 가진 조치를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의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시장 친화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청년고용의 현황 및 변화를 인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및 지역·도시 차원의 청년고용이 고민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기존 일자리에 변화를 주거나 마케팅을 통해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1인 기업 등의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고용 성장이 실제적으로 청년의 사회적 상승, 가난, 불평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청년고용 정책은 교육 및 훈련제도, 사회보장제도, 경제성장, 기업가정신 등에 관련된 정책과 연동하여 구상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 수집을 위해 상시적으로 청년 및 고용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통로를 조성해야 한다.

고용시장 전문가인 마이크 캠벨(Mike Campbell) 교수와 URBACT 코디네이터 앨리슨 파트리지(Alison

Partridge)는 청년고용을 위해 도시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사안의 중요성을 밝히고 주요 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 둘째 고용시장 및 청년에 대한 이해를 확대할 것, 셋째 양질의 일자리 증가에 따른 청년고용을 증폭시킬 것, 넷째 상이한 기관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접근, 다섯째 고용주의 의견 수렴 및 신뢰를 도출할 것, 여섯째 청년-시정부-고용주 간의 소통에 노력할 것, 일곱째 관련 서비스의 단순 제공을 넘어 시정부의 청년실업 정책활동의 지원·촉진·고민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URBACT 보고서의 제안은 유럽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서울의 청년실업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유럽 등 범국가적 차원의 재정이나 정책적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고용의 연계나 지역 파트너십 수립 등은 단기간에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대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원칙들은 서울형 청년고용을 위한 구체적 정책수립 기준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실제 정책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요소는 관계자, 특히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청년조직 및 대표들이 정책을 설계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정책은 실효성을 얻을 것이다. **W**

#### 참고문헌

- 김수현, 2014년 8월호, 청년고용문제의 실태와 원인, 서울경제, 서울연구원
- URBACT II capitalisation, 2015, Job generation for a jobless generation, URBACT Secretariat
- 머니투데이, 2016.02.17, 1월 청년 실업률 9.5%...실업률 6개월째 최고치
- 머니투데이, 2016.02.19, 정의당 '청년고용할당제, 민간 대기업까지 확대해야'
- 서울신문, 2016.02.25, 서울시 '일자리 대장정' 2막 올해도 된다